

나는 존재를 넘어서 ‘있는’ 바로 그것 (2부)

| 프란시스 베넷 | 노호상 옮김 |

각성의 본성은 궁극의 행복, 평화와 다르지 않음을 '절대적 복종'을 통해 발견한 경험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메리 부인, 지금 부인은 무척 힘들고 고통스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시나요?” 그녀가 글자판을 내려놓고는 나를 응시하면서 마치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듯 머리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가 담겨있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전에는 그녀에게 결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었다. 대개는 그저 듣기만 했다. 부인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궁금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부터 시간이 마치 슬로 모션 화면처럼 천천히 흐르는 듯했다. 내 입에서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말을 하면서 나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랑의 느낌으로 방안이 가득했다. 사랑으로 충만된 현존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메리 부인, 제가 알기에 부인께서 지금 경험하시는 이런 종류의 고통을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복종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하자마자 큰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메리 부인과 나 사이에 일종의 신뢰가 쌓이긴 했어도 여전히 나는 그녀가 이 말에 기분이 상해서 내게 나가라고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임상목회교육에서 교수님들이 경고했던 이런 위로, 규범적인 대답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말을 이미 내뱉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참선 수행의 시작과 마침을 알릴 때 선사가 치는 약간 높은 음의 종소리 울림처

럼 사라지지 않고 방안에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나는 이 말들을 되돌릴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메리 부인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 눈물이 가득 차 흘러넘쳐서 얼굴을 가린 꽃무늬 실크 베일 아래 뺨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3분 정도를 그렇게 마주 보고만 있었다. 결국 그녀는 글자판에 무언가를 쓰고 내가 보도록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적혀있었다: 감사합니다, 프란시스 씨!

메리 부인은 그날부터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복종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으로 보였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건 없는 기쁨이 나타났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틀 후가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 날은 내가 본 가장 즐거운 파티였다. 그 날 이후로 마치 손으로 만져지듯 뚜렷하게 메리의 주변에 평화와 기쁨이 둘러싸여 있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를 다시 방문했을 때, 나는 그녀의 존재에서 절대적으로 고양됨을 느꼈다. 그녀는 변화되어 있었고 살아있는 빛과 평화와 고요함을 발산하고 있었다. 다음 주 그녀는 글자판에 이렇게 썼다. ‘저는 날마다 하느님과 제 자신에게, 왜 하필 나란 말인가? 라고 묻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안 될 건 또 뭔가? 라고 말하게 되네요.’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여성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신에게 분노하고 있어서 정말로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기적과 같았다. 그녀는 암이 그녀에게 준 공안을 분명히 ‘통과’했다.

메리 부인은 이것을 통과하고 겨우 약 2주일을 더 살았다.

죽기 직전에야 복종할 것인가, 지금 복종할 것인가?

그녀가 죽은 지 얼마 후 나는 차를 몰고 가던 중에 그녀의 마지막 주 일 동안에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현존으로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감정에 북받친 나머지 차를 갓길에 대고 자신을 추슬러야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상한 질문이 마음속에서 솟아났다. ‘죽기 직전에야 복종할 것인가, 지금 복종할 것인가?’ 나는 그 질문에 말로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길 위에서 일종의 감정적이고 영성적인 해방이 일어났다. 그 일은 나에게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 같았다. 이 경험의 결과는 지금껏 ‘내 삶’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응당 그래야 하는 대로 펼쳐진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무엇이 펼쳐지든, 그것은 그저 지금 그대로의 그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달리 가능할 수 있는가? 그때 이후로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크게 걱정이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삶은 외견상 이 ‘나’를 통해서 이어지지만, 그 어떤 일도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이상은 어떤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외견상 변화를 향한 의지는 여전히 어떤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깊은 수용과 심오한 복종의 자세가 삶에 스며들어 시련의 시기를 훨씬 살 만하게 만든다. 나는 두 손을 모아두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나의 선사님들과 아름다운 청록색 눈을 가진 메리 부인에게 바친다. 나는 결코 그녀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자아 탐구에 대해서 배운다

2007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로마 가톨릭 수도승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파리에 근거지를 둔 조그만 수행 공동체였다. 그들은 2004년 몬트리올에 작은 단체를 만들었고, 나는 그곳에 들어갔다. 여기서 나는 바가반 스리 라마나 마하리쉬의 가르침을 발견했다. 그는 인도에서 살았고 내가 태어나기 몇 해 전에 인도에서 별세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중 한 사람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내가 만났던 가장 중요한 스승님이다. 비록 그는 힌두교도였지만, 스리 라마나는 내가 믿게 되었던 것, 예수의 근본적인 메시지, 그리고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쳤다. 내가 게세마니의 트라피스트 수도승이었을 때 스리 라마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유별나게 생생한 고요함을 가진 그의 얼굴 사진을 보았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가르침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었다. 지금 나는 『라마나 마하리쉬의 영적 가르침』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자아 탐구’라는 그의 단순한 방식이 나의 심금을 건드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영성 수행인데 나는 자아 탐구 혹은 자아에 머물기라고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이 수행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행에 대한 더 완전한 설명은 이 글 어딘가에서 나오겠지만 그것에 대한 힌트는 사실상 내가 영성 수행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에 들어있다.

신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

나는 다시 수도원의 삶을 즐겁게 보내면서 스리 라마나에게서 배웠던 자신에게 머무는 수행을 하고 있었다. 고요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여러 해를 이 모든 것에 몰두했다. 나는 나의 모든 세상을 바꿨던 깊은 각성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을 경험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구도와 수행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인식의 변화였다. 사실 이런 ‘경험’은 전혀 경험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순수한 알아차림을 발견한 것이었다.

미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어느 순간 마치 정수리에 번개가 내리쳐서 머리에서 발까지 몸 전체에 강한 에너지 흐름을 보낸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불현듯 내가 일생동안 찾아왔던 신의 현존이 실제로 항상 내 안에 있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 신은 모든 것 속에 있고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

왜 나는 이것을 전에는 볼 수 없었을까? 그것은 무척이나 명백했다. 그저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나는 분명하게 이것을 보았고 나라는 존재의 모든 세포로 그것을 느꼈다.

스리 라마나가 역설했던 있음I am 혹은 자아the Self, 나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존재감이 사실은 항상 아무런 노력 없이 영원히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는 깊은 직관적인 앎이 그 순간 있었다. 혹여라도 그것이 현존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결코 없다. 그리고 영원한 지금에서 이런 단순한 현존감은 신의 현존과 다르지 않다. 이를 알게 된 찰나에, 이 영원히 빛나는 있음I am의 현존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진정한 나의 정체성임이 저절로 이해됐다.

‘나의 스토리’가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떨어져 나간다. 개인적인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기억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개인적인 동일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 즉시 '나의 스토리'가 머릿속의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그것이 살아있는 실재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섬광 같은 찰나에 일어났고, 나의 가장 깊은 의식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 그것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라는 것은 단지 이런 영원히 존재하는 것, 단지 알아차림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존재하는 그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번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보이고 나면, 이 진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은 그 속성상 진정한 사랑, 평화, 즐거움, 그리고 거대한 공간이다. 더 나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모든 이런 단어나 은유들은 이런 실재, 이런 침묵을 겨우 빈약하게 가리킬 뿐이고, 그것은 완전히 언어를 벗어나 있다.

소위 삶에 대한 이런 간단한 설명과 앞으로 들려줄 내용이 우리 각자의 가슴 속 깊이 있는 진아眞我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이미 이런 진아 혹은 현존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당신과 공유하기 위한 보잘것없는 시도이다. 진아는 사실 당신과 내가 일생동안 그렇게 진지하게 찾아왔던 모든 사랑, 평화 그리고 즐거움의 경이로운 발견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존재의 한 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버릴 수 없었고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오한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삶 혹은 존재 그 자체이고, 정말로 우리인 것이고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상대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상대성과 관해서 갖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상대성이 절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각성의 열매들

각성은 절대적 실재에 깨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삶의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각성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은 꽤 자연스럽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찾고 또 찾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 장소 혹은 물건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계속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재의 절대 차원으로 깨어나 아주 명료하게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만을 분명하게 보는 게 아니라 상대성도 분명하게 본다. 상대성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상대성과 관해서 갖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상대성이 절대가 되기를 바랄 때다.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온갖 형태들의 상대성을 명료하게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형태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든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제 상대적 세계의 일시성과 덧없음을 배웠고, 아무 문제없이 이 점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마치 특별한 날에 누군가로부터 장미를 받을 때와 같다. 우리는 장미를 받기를 좋아하며 장미의 아름다움을 즐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미가 20년이나 계속 있기를 결코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는 장미가 얼마동안만 피어있으리란 것을 잘 안다. 장미의 무상성이 실제로 그 아름다움의 일부이다.

그래서 실재의 절대 차원에서의 각성은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각성이다. 근본적으로 모든 걱정은 우리가 원하는 실재가 그것과 다른 것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상대성이 절대성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상대성은 절대의 의식/각성의 공간 속에 일어나는 단지 잠정적인 드러남이다. 우리의 경험에 존재하는 모든 상대적인 형태들은 각성의 절대 공간에서 일어나고 멈춰야 한다. 그래서 모든 형태들, 모든 물리적인 드러남은 실재로 그리고 역설적으로 형태가 없는 것의 일부분이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삶에서 많은 것이 중요하고 분명 큰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급한 상황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각성은 그것들이 그와 같은 식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온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가벼운 태도로 우리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견지하도록 돕는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물, 사람 그리고 사건은 그것들이 한때 그랬던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걱정이 많이 없어지고 삶이 결과적으로 더 쉽게 순항해 나간다.

우리는 대부분 안정과 평화를 찾고 있다. 일단 우리가 실재의 절대적인 차원을 인식하면, 우리는 안정과 평화의 원천과 정점에 접속되어 있다. 확장된 각성은 안정적이고 불변의 실재이다. 각성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보다는 단지 각성 속에 우리 초점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정이 항상 현존하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스스로가 안정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절대의 고요함과 침묵 속에 사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절대의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것은 침묵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궁리하느라 너무 분주해서 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관계의 틀에서 각성이 우리를 돕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고 혹은 궁극의 의미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에서 엄청난 압력을 줄여준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긴장을 풀고,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즐길 수 있다.

각성의 본성이 실제로 신의 실재, 궁극의 행복과 평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깊이 확신하고 알게 될 때, 당신의 직접 경험으로 당신이 세상에서 찾아왔던 절대적 행복과 평화를 인식하게 된다.

바로 지금, 당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기쁨과 행복이 당신 존재의 중심에 이미 존재해 있다. 이 평화로운 기쁨과 행복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고 절대적인 차원에서 당신 자신의 본질인 것이다. 이런 즐거움과 행복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이다. 말하자면 결코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각성의 궁극의 열매는 이와 같은 조건 없이 머물러 있는 즐거움과 행복이다. 이런 즐거움과 행복은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실제로 당신의 거부할 수 없는 유산이다. 당신은 사실 스스로가 무한한 사랑과 즐거움과 행복이다. 이런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경이로운 각성의 실질적인 결과다. 결국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평화를 찾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는 행복 추구야말로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라고도 말한다.

나의 마음속 가장 깊은 의도는 당신이 정말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

한 해탈의 자유를 당신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에 내 여생을 바치는 것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완전히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깊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글을 읽고 깨어나, 당신인 것 그리고 이미 당신이 누구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항상 누구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끝) 

- 이 글은 『I Am That I Am』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프란시스 베넷 Francis Bennett** | 평범하고 사교적인 젊은 청년으로, 일반적으로 트라피스트 수도회로 알려진 엄격한 계율의 시토 수도회의 수도원에서 명상가로서 영적인 삶의 부름에 따라 산 젊은이였다. 20세기의 개척자적인 기독교 신비가인 토마스 머튼은 프란시스의 영감이었다. 그리고 기독교, 불교, 아드바이타 베단타 그리고 비이원성의 틀 안에서 프란시스가 가장 깊은 존재의 실재를 탐구하게 했던 것은 머튼의 영향이었다. 프란시스가 수도원의 삶을 떠난 이후에는 지역과 병원과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다. 2010년 미사 도중에 프란시스가 “의식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모두의 가슴 속에 순수한 알아차림이 신의 현존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신의 현존은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밖에서 찾아왔던 바로 그것, 순수한 알아차림이었다. homepage: <http://findinggraceatthecenter.com>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쇼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